

시론



탁인석
문학칼럼니스트

서울에서 일을 보고 광주송정역에서 내려 지하철 내려가는 계단 천장에 대형 글씨로 다음의 문구가 쓰여 있었다. “광주, 하늘길·철길·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으로 더욱 단단해집니다.”라고

아니 지금 광주 공항이든 무안 국제공항이든 외국에 나가는 정기선은커녕 전세기 하나 못 띄우는데 하늘길로 거대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는 너무 거창한 것 아닌가. 명색이 AI도시이고 호남권 중심도시라면서 국제선 하나 못 띄우는 도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헛구호를 내건 것은 아닌가. 이런 구호 앞에서 시민은 피로감이 겹치고 행정당국의 시책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면서 과연 이곳이 민주당의 심장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이 기대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정말 생각한다면 국제선 없는 광역권을 어떻게든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과연 무엇으로 호남권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건가. 그 일이 정말 국제선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

2007년 11월 이후 광주 공항에서 국제선을 빼간 이후 호남의 국제화는 남의 집 일처럼 됐다. 우리와 가장 상대를 많이 하는 중국을 나가고자 할 때 그 불편은 어떠한가. 무안으로 국제선을 옮기면서 당국은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를 개설해서 40분밖에 안 걸리

국제선 없는 AI도시 광주!

는 거리이니 접근성은 물론이고 광주·전남에다 전북 사람들도 가세할 것으로 기업을 토해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호연장담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대로이다. 무안으로 국제선을 옮긴 이후 이용자는 급감 하듯해 아예 정기선마저 문을 닫았으니 이놈의 노릇을 어찌할꼬. 더구나 2024년에는 무안공항의 대형사고까지 겹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사고 수습마저 감감무소식이라는 소식이다. 지역정차권의 무관심이 하늘에 닿았다는 여론이다.

무안으로 국제선이 옮겨간 마당에 호남 사람들이 국제선을 이용할라치면 인천공항까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하고 이로 하여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제선을 무안으로 옮기기 전 광주에는 상해선이 매주 9회를 뒀고 북경 2회에도 선양 2회, 장사 2회 등 그런대로 국제선 행세를 했고 여타 취항 예정까지 합치면 30회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국제선의 무안 이전 이후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광주 국제선을 갖가지 명분을 붙여 무안으로 옮겨가더니 그 결과 광주는 물론 전남도 죽고 호남 전체가 폭삭 무너지고 말았다. 적어도 광주는 명색이 호남을 대표하는 400만의 거점 도시이다. 광주에 국제선이 떠난 이후 발생한 불편은 스스로가 호남권 전체가 떠안고 있다. 전주에서 광주 국제선을 이용할라치면 광주행 버스만 타면 됐다. 그런데 무안공항을 이용하자면 버스노선도 없고 쓸데없는 경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사정은 여수·순천 지역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동부 쪽 사람들은 남해고속을 따라 김해공항으로 가야만 한다. 국제 교통수단의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과 부산은 이에 맞춰 외국인들이 북적거린다. 그런데 호남은

어쩔까. 그렇지 않아도 국제화가 뒤쳐진 마당에 항공사고까지 겹쳐 그 고립 양상은 더 더욱 심화된 터이다. 그래서 호남에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이 호남을 찾거나 간에 그 불편함이 어느 정도일까는 설명이 새삼스럽다. 이쪽 사정이 이렇진대 어느 외국인이 국제선 없는 호남을 찾아올 것인가. 최근 케데헌 붐을 타고 외국인들이 서울로 밀려오는 데 광주 등 호남권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은 1명도 없다. 광주 국제선 폐지가 얼마나 그릇된 판단이었던가를 짐작하는 순간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설명이 새삼스럽다. 더구나 외부와 함께 호흡하는 도시는 살아남을 것이고 닫히면 죽게 돼있다. 먼 훗날에는 무안공항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광주와 호남이 살기 위해서는 광주 공항 국제선 재추진은 시급하다. 지역이 이 같은 문제로 살아야 하는 데도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치권의 성과는 별무신통이다.

다시금 광주공항으로 돌아오자. 광주공항은 여건상 활주로도 국제선에 적합하고 철새도 없고 접근성 또한 좋으니 국제선을 띄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표 반이 갈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 줄 것 같은 민주당은 지금이 시간 어느 하늘 밑을 헤매는지 모르겠다. 광주의 공공항 문제도 그렇다. 전투기 이륙에 따르는 소음이 광주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을 떠나 한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것이다. 전시에 국민적 동의나 지자체에 투표하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게 맞는가. 미국의 동의여부는 모르겠으나 군공항은 국가가 안보에 필요하다면 강제성을 발동하고 주민을 설득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 모두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줄기 빛’ 긴급복지로 삶의 재도약 지원

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로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질병, 부상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주민들은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럴 때 남구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희망의 첫 손길’이 된다. 현장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시급한 가정에 신속히 복지자원을 연결하는 공무원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수많은 가정이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올해 1~9월 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건수는 총 4천38건, 지원 규모는 30억5천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현황을 보면 경기 침체 여파를 반영하듯 생계비 지원이 2천674건 (29억2천400만원)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은 275건 (6억5천900만원), 주거비 지원은 31건 (900만원)이었으며 연료비·장례비 등 기타 지원은 1천58건 (1억5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2명과 함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단란한 가정을 지켜오던 한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된 소득이 끊기고, 남편의 채무로 인해 거주하던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아내는 일자리를 찾아봤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결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남구 긴급복지 담당자는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흘 만에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했다. 해당 가정은 3개월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뒤 생활 안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

려해 심의를 거쳐 3개월 추가 연장 지원이 결정됐다.

덕분에 이 가정은 연휴 시작 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구청은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을 추가로 연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안내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이처럼 남구는 모든 복지 자원을 총동원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위기 상황을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복지자원을 단계별로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발맞춰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고 있다.

남구는 매년 변화하는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안내하고 다양한 복지자원을 긴밀히 연계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목표는 하나다. 위기에 처한 누구도 복지의 울타리밖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을 지속하겠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안전하고 따뜻한 동절기 보내기

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과열이나 과부하 및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개인의 부주의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담배꽂초 투기·음식물 조리 중 방치·향초, 난방기구 주변 가연물 방치 등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LPG 가스 누출, 전기적 결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화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화재 발생 확인과 빠른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난방용품은 (KC·KS마크) 제품인지, 문어발식 사용 금지, 사용 후 전원 차단 확인 등 가족과 함께 화재 대비 실천을 통한 따뜻한 동절기가 되길 바란다.

〈이동수·여수소방서 여서센터 소방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차세대 한류 선도 K-문화콘텐츠 허브 적지는 광주

광주시가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략적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복합지식 산업센터 건립, 인재 양성 캠퍼스, 콘텐츠 성장펀드,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인재·기업·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구현하는 게 골자로 2천500여명이 투입된다.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국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과 함께 콘텐츠 제작과 실증,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망라해 대역사로 할만 하다.

AI시대, 콘텐츠산업과 창작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이끄는 5대 전략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역량을 갖췄다. 유망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문화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는 중이며,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시는 AI 기술중심 콘텐츠 융합 실증에 전력해온 바, K-콘텐츠 테크타운과 더불어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AI콘

텐츠 기반이 이미 조성돼 전문인력을 키울 수 있고,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무한한 확장성과 가능성을 내세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7대 의제에 포함시켜 공식 건의하며 공유했다. 특위는 실행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이 이재명 정부의 ‘창의적 문화국가’ 비전 실현을 이끄는 중요 플랫폼으로 역할할 수 있다. 전방위적 혁신을 상징하는 최대 규모의 클러스터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 문화의 힘으로 자생적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아시아중심도시를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특별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광주를 차세대 한류문화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 충분한 조건이 구비됐고, 법적 여건도 확보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정 과제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의 주축이다.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등 제반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성장세 둔화 광주 제조업 산업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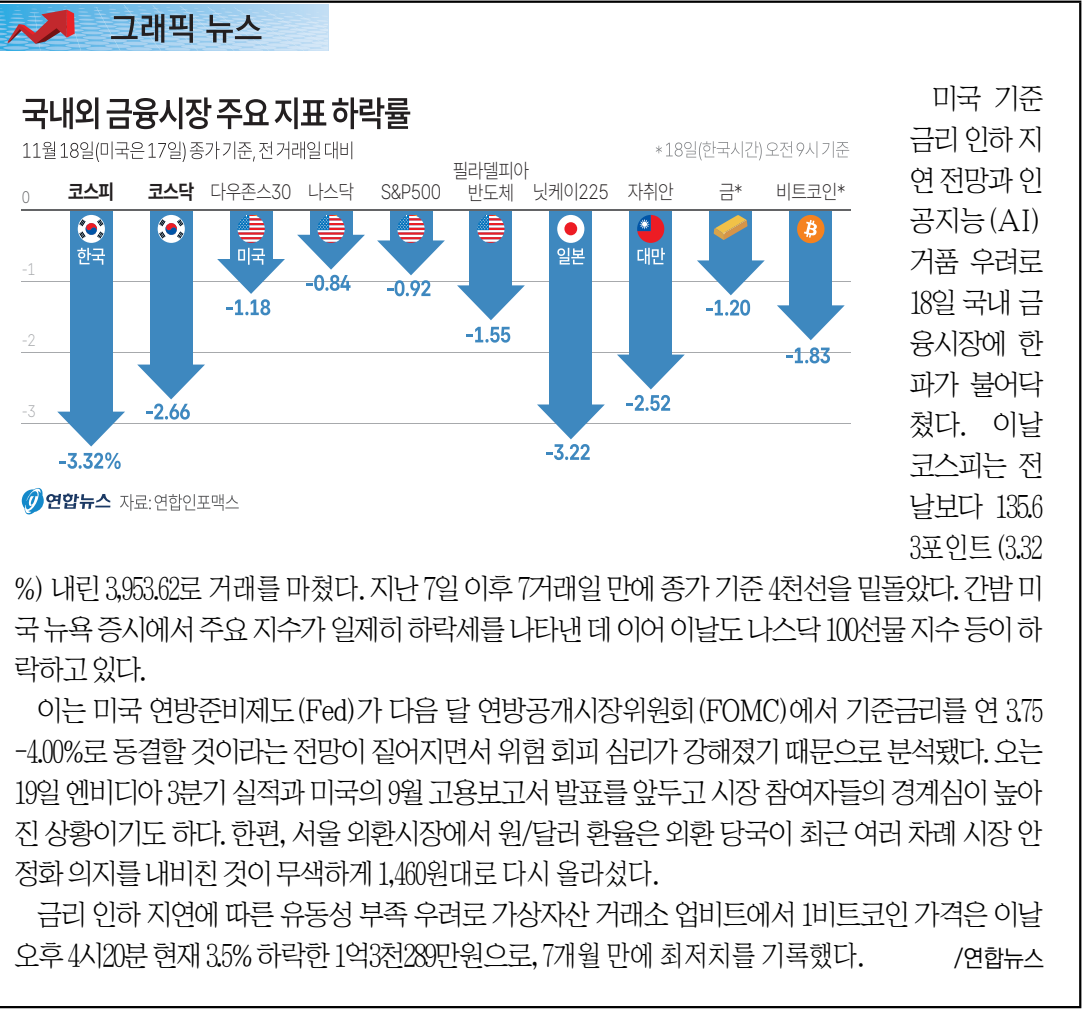
자동차와 함께 광주 경제를 이끌었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이 사업체와 종사자 수, 생산액 모두 지속 감소하는 등 쇠퇴 징후가 뚜렷하다. 또 역점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및 미래 모빌리티는 아직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신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제조업의 불균형 실태를 지적했다. 제조업 사업체 수는 5천500여개, 종사자는 1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실질 성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는 수년째 20조원 초반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별 편중 현상이 두드러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업종이 전체 생산액의 45%, 부가가치의 40%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경제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완성차 업계의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취약한 구조가 드러났다. 사실상 성장 동력이 계속 약화되는 불안한 국면에 놓였다.

인구 140만명선이 무너지는 등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의 유출 가속화는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고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

다. MZ세대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맞물린 만큼 조속히 묘수를 찾아야 한다. 한편으로 최근 유럽 최대 공조기 업체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한 삼성전자가 광주공장 생산라인 건립을 타진 중이라는 희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전이 성사되면 광주는 AI데이터산업에 필수적인 열 냉각 공조기술 시장에서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한다. 공장 투자 뿐 아니라 직·간접 고용시장 파급 등으로 첨단 제조업 활성화에 큰 계기가 될 전망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호재인 셈이다.

사양길로 접어든 전통산업의 공백을 대체할 미래 유망산업의 부진도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충의 제안대로 전기·수소차 부품 등 미래형 투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AI와 관련해선 과감하게 규제를 제거해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등의 사업화까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제조업의 부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될 것이다. 경제·산업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자투고



아침 저녁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11월, 소방청은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확실한 예방을 실천하는 기간을 가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11~2월 기간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